

8 경희와 함께한 사람들②-경희 후원의 집 ‘고기야 미안해’ 정일웅 후원자



'고기야 미안해'의 대표 정일웅 씨는 6년간 우리학교를 후원해오고 있다.

(사진=한진석 기자)

‘고기야 미안해’ 아저씨가 전하는 따뜻한 온기... “경희야 사랑해”

한진석 기자 1\_jinseok@khu.ac.kr

등곳길에 꼭 한 번 지나치는 가게, 간판을 볼 때마다 웃음을 주는 주점이 있습니다. 회기에 10년째 자리를 잡고 있는 ‘고기야 미안해’입니다. “살아 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팔고, 그 덕에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기에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다”는 정일웅 씨의 말에서 가게 특유의 유머러스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장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그의 태도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6년간의 조용한 후원**

“그냥 자리가 좋아 시작했다”며 사장님은 소박한 창업 계기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10년째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이어가는 데에는 길모퉁이의 가게 위치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정 씨는 가장 큰 이유로 가게를 계속해서 찾아주는

경희대의 구성원들을 꼽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이끌려 경희대학교의 축제를 즐기기도 하고, 남몰래 학생들의 행사에 작은 도움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인심 좋은 동네 아저씨처럼 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는 순간들이야말로 그에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모임마다 작은 바구니를 걸어두고, 마신 음료의 뚜껑을 담아둔 가게의 한쪽 벽에는 오늘도 학생들의 추억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가게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도 찾아오는 학생들을 위해 가게를 크게 바꾸고 싶지 않다는 것이 정 씨의 생각입니다. 가게를 차린 것은 물론 그의 몫이었지만, 이 공간을 함께 꾸려나가는 데에는 학생들을 비롯한 손님들이 몫이 가장 컸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난 후부터 변한 것이 하나 있다면, ‘고기야 미안해’가 우리대학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2016년 2월부터 ‘경희 후원의 집’으로서 매달 경희를 향해 마음을 전해온 정 씨는 지금까지도 후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후원의 집’이 된다고 해서 구성원들이 특별히 더 알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은 더 더욱 아니고요. 취재 중에 만난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기야 미안해’가 후원의 집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정 씨는 “무언가를 바라고 한다면 후원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학생들 덕분에 장사를 이어갈 수 있고, 또 학생들의 웃음과 위로 덕분에 큰 보람을 얻어온 만큼 작은 도움이라도 보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후원을 이어오고 있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웃음이 원동력**

김지현(호텔경영학 2017) 씨는 “늘 웃음과 활기가 넘치는 ‘고기야

미안해’가 등하곳길을 지키고 있어 큰 위안이 된다”며 “정기적인 후원을 하고 계신 줄은 몰랐지만 그 외에도 동아리, 답사, 학생회 활동 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위해 애써 오신 것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유명하다”고 학생들에게 이 공간이 어떤 의미로 기억되는지 설명했습니다. 또 김 씨는 “선부르게 학생들의 사정을 짐작하고 조언해주시 기보다는 조용히 응원해주시고 반찬 하나 더 내어주시는 정 때문에 한 번 더 이곳을 찾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정 씨에게 앞으로 가게를 어떻게 바꾸어나가고 싶다는 특별한 욕심은 없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모임이 자연스럽게 피어나고, 또 추억이 쌓이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그의 작은 소망입니다. 늘 손님들로 붐비고 손님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던 ‘고기야 미안해’였지만 코로나19의 여파는 피해가기 어려웠습니다. 우리학교 역시 비대면 체제로 전환하면서

가게 근처를 오가는 학생들의 수가 크게 줄었고, 손님의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때도 있었습니다. 가게의 운영도 운영이지만, 학생들과 이야기하고 어울리는 시간을 가장 큰 보람 중 하나로 삼던 그에게는 힘든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고, 보고 싶던 학생들도 하나둘 다시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우리학교를 졸업한 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가게에 앉아 울고 웃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동생을 보는 듯하다고 합니다. 고민의 깊이를 알 수 없기에 농담 한 마디, 술 한 잔으로 위로를 건네는 것이 다이지만 그들을 응원하는 마음만큼은 언제나 진심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함께 동고동락한 학생부터,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게에 들르는 학생들, 그리고 진지한 목소리와 함께 술잔을 높이는 학생회 학생들까지. 하나하나 셀 수 없을 정도로 끈끈한 인연들은 정 씨가 오늘도 가게 문을 힘차게 여는 원동력이 됩니다. ‘고기야 미안해’는 경희를 후원하는 가게인 동시에, 학생들의 상상이 펼쳐지는 공간이고 서로에게 위로를 건네는 장소로 자리하고 있습니다.